

# 科學技術學會活動略史

6

## 韓國微生物學會, 韓國植物分類學會篇

### 韓國微生物學會

#### 1. 여명기(1959~1965)

구미 제국 및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생물을 재료로 한 分子生物学과 産業微生物学的의 發展에 고무된 国内 學者들이 韓國 學界의 연구업적을 총괄하고 相互間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여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59년 11월 20일 하오 4시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의실에서 發起人會를 開催하였다. 이때의 참석자는 金浩植 韓容錫 李敏載 鄭英昊 李周植 李星範 鄭厚燮 李明煥 朴啓仁 沈宗浩 金侖熙 曹惠鉉 金東燦 金永泰 金銀壽 朴茂榮 申鉉玉 權京珠 白承福 등이다.

계속해서 1959년 11월 22일 하오 12시 20분에 성균관대학교 文理大에서 위 발기인등 74명이 參加하여 創立總會를 개최하였다. 初代 會長에는 金浩植 先生이, 副會長에는 韓容錫 李周植 씨가 選출되었다.

초창기의 연구동향은 이렇다할 方向은 없었으나 매우 의욕적으로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있었다. 이들은 항생물질 生成 균주의 개발과 그 작용기작에 관한 연구 및 발효 食品에 관련된 微生物들에 대한 초보적 生理 기작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즉, 곡자에 서식하는 미생물, 연초 바이러스, 콜로레라 杆菌, 아밀라제에 관한 연

구 논문들이 많이 發表되었다.

정기적인 學術發表 大會외에 月例會를 개최하여 일정한 주제하에 綜說을 발표하였고 토론회(Symposium)을 개최하기도 하여 비교적 活潑한 學會活動을 전개하였다.

會員들의 연구발표의 場인 學會誌는 1963년에 創刊되어 이후 學術發表大會에서 발표된 論文들을 편집위원회에서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 2. 성장기(1966~1975)

초창기를 거친 學會는 이배함, 이민재, 이영록, 이주식 등이 각기 꾸준한 연구활동을 벌려 *Aspergillus*와 *Amylase*, *Protease*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이 중 특이한 것은 이민재의 방사성 감수성 중간에 대한 연구와 이영록의 *Chlorella* 生理에 대한 연구가 있다. 같은 期間中에 講演會도 계속 개최되어 微生物 細胞막의 구조와 기능, *Aflatoxin*의 구조 및 作用등이 있었고 外國學者들을 초청하여 特別강연회를 개최하였다.

微生物学的의 순수분야와 응용분야의 고른 발전을 꾀하고 미생물학을 産業界와 一般人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고자, 1965년부터는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微生物과 産業誌를 不定期的으로 發刊하게 되었다.

1968년도에는 本學會의 初代 會長이던 서울대 농대의 金浩植 博士가 宿患으로 別世하여 모든 會員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1968년도 부터는 그 이전에 年 1회 또는 2 회씩을 발간하던 會誌를 四回로 늘려 발간했 고 이때 발행부수는 각一千部씩이었다.

1969년도에는 本學會 李敏載 博士가 5·16 民族 文化賞의 學術部門 장려상을 受賞했다.

초창기와 성장기를 벗어나 釜山大 文理大에 서는 *Saccharomyces breanerei*에 대한 집중 연구가 이루어 지고, 펄프, 폐수 처리에 대한 연구가 서울大 文理大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다.

고려대에서는 꾸준히 *Amylase*의 研究所에서 金鍾協의 *Aspergillus niger*에 대한 연구와 서울大 文理大과 原子力연구소의 *Thiobacillus Concreti Varus*의 生理연구 그리고 연세대 의 대의 곡류에 오염된 진균에 관한 연구등이 집중 적으로 연구된 分野이다.

公害문제가 대두된 後에 펄프공장 폐수의 미 생물학적 분해에 대한 연구와 *Am ylase*와 더불어 당분해효소인 *Cellulase*에 관한 연구가 새 로운 분야로 대두되었다.

### 3. 現 在

*Cellulase* 효소의 생산 및 특성에 관한 연구는 1976년도 서울대 洪淳佑 연구진에 의한 *Tricho-derma*속, *Aspergillus*속 *Stroptomyces* 속에 의한 *Cellulase* 효소 생성균주 분리 및 효소학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세대학교 김은수 연구진 은 *Alterneria*와 *Tachybotrys*속에 의해 생성 된 *Cellulase* 효소를 정제하여 효소학적 연구를 하였다. 그의 전북대 홍재식 연구진도 *Pleurotus* 속에 의한 *Xylanase* 연구를 계속했다.

1977년도엔 高大 이영록 연구진이 *Aspergillus* 속에 의한 *Cellulase*와 *Amylase* 연구를 진행 했고 서울대 한윤우, 과학원의 유두영 연구진 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시켰다.

*Cellulase* 연구는 앞으로도 보다 집중적으로 수행되리라 생각된다.

근래의 Antibiotic에 대한 연구는 서울대 이 민재 연구진의 *Streptomyces*에 의한 항생물질 분비균의 분리 동정을 비롯하여 이영록등도 항

생물질을 생성하는 미생물들을 연구하였다.

근자에 이르러 새로운 分野로서 *Aspergillus nidulans*의 유전학에 대한 연구가 서울대 에서 시작되었고, 고대 이세영 연구진은 *Salmonella System*을 利用한 돌연변이 유발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 미생물학의 조 류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할 가 치가 있는 것으로서 집중적인 연구가 바람직하 다 하겠다.

### 4. 結 論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韓國 微生物學 界에서의 주된 연구과제는 産業的 利用가치가 있으면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실험할수 있는 셀 루라제, 아밀라제 生成 균주의 分離, 同定과 그 효소학적 연구와 항생물질 생성 균주의 研究이 다. 最近의 연구동향으로써 환경문제와 遺傳學 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었다.

환경문제는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공해의 원인인 *recalcitrant sub-stances*들의 微生物에 의한 분해과정을 밝히고 분해능이 우수한 균주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重 要한 일일것이다. 또한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遺傳的 機作을 利用하여 여러 종류의 물질 (예 : 색소, 의약품등)의 돌연변이 유발성을 측정 하는 것도 환경문제 研究의 한분야가 될것이다.

## 韓國植物分類學會

한국식물분류학회는 1968년 10월 우리나라 분류학도들의 결속이 필요함을 통감해오던 朴萬 侏, 安鶴洙, 李德鳳, 李永魯, 李愚喆, 鄭英昊 씨들에 의해 발기되었다. 1968년 12월 13일 이 화여자 대학교 생물학과에서 17명의 회원이 모 인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본회의 목적은 식물 분류학에 관한 연구를 조성하고 그 지식을 보급함에 두었다. 또한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학회지(연 2회) 및 학술문헌의 간행 (2)학술 강연 및 채집회를 갖기로 정하였다. 초대 任員은 회장에 朴萬作教授, 부회장: 李永魯教授, 간사: 李愚喆, 吳瞎子로 선출되었다.

1969년 6월에 식물분류학회 제 1권 1호를 창간호로 발간하였으며 같은해 6월에 無等山에서 채집회를 가졌으며 7월에 제 1권 2호를 특집으로 발간하였다.

1970년 월례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5월에 경기도 광능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집회를 가졌다.

식물분류학회지는 제 2권 제 1, 2 합병호로 1970년 12월에 발간되었다. 회원中 이 덕봉教授는 11월 7~8일 日本 文理大学内 조선학회 초청을 받아 “한일간의 생물학적 교류”란 제목으로 연구 발표하였다. 이 영노教授는 70년 6월 14일부터 6개월간 Denmark 국무성 초청으로 연구차 Denmark Copenhagen Univ에 체류하여 스칸디나비아반도 일대를 채집하고 스웨덴, 이태리, 파리등 식물 채집점 식물원 및 표본실을 조사하였다. 또 11월 덴마크 식물학회에서 “Korean vegetation과 Denmark vegetation의 비교 및 Raunkier의 Life form과 Flowering Periods비교”를 발표하였다.

1971년에 월례회를 4회 개최했으며, 3월 2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李德鳳, 부회장에 李永魯, 간사: 李愚喆, 吳瞎子, 李銀馥으로 개선되었고, 회원수는 51명으로 동원되었다. 5월에 천마산에서, 9월에 광능 임업시험장에서 채집회를 개최하였다. 1971년 12월에 발간된 식물분류학회지 제 3권 제 1, 2 합병호에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우리나라 식물분류학의 선구자인 정 태현박사가 1971년 11월 숙환으로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1972년에 5회의 월례회에서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4월 경기도 광능에서 열린 채집회에는 60명이 참가하였다. 식물분류학회지 제 4권 제 1, 2 합병호가 1972년 12월에 발간되었으며, 5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회원중 이 덕봉박사가 72년 8월 15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고, 이영노, 박봉규박사가 연구차 월남, 대만, 일본을 방문했다.

1973년 2회의 월례회와 3월 72년도 정기총회에서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채집회는 개최하지 못하였다. 총회에서 회장에 양 인석, 부회장에 이 창복교수가 각기 당선되고, 식물분류학회지 제 5권 제 1, 2 합병호에는 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1973년 12월 발간되었다. 회원중 박만규박사가 1973년 3월 23일 국민훈장모란장을 받았고, 이 덕봉박사가 11월에 제 4회 하은 생물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1974년부터 한국자연보존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계시다.

학회지 제 6권 제 1, 2 합병호는 1975년에 1월로 연기 발간되었으며, 5편의 논문이 실리었다. 이 때의 회원수는 71명이었고, 1975년 임원 개선에서 회장에 이 창복박사, 부회장에 이영노, 정 현배, 이사 13명, 감사 2, 간사 3명이 선출되었다.

1976년 6월에 발간된 식물분류학회지에서 6편의 논문이 실리었고, 1977년 임원 개선에서 회장에 이영노, 부회장에 정 현배, 이 우철, 이사 15명 감사 2명 간사 3명으로 선출되었다. 회장인 이영노 박사가 4월 21일 과학의 날 국민훈장을 수상하였다.

1977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채집대회는 5월에 광능에서, 9월에 과천 청계산에서 개최하였다. 11월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특별 강연 2편 및 학술논문 4편이 발표되었다. 회원중 초대회장이었던 박만규박사가 1977년 10월 27일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1978년도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의 명칭을 통일하여 식물학회와 문교부에 보고하였다.

채집대회는 5월 경기도 동구릉에서 개최하였고, 학회지는 제 8권 제 1, 2 합병호(통권 9호)를, 1978년 9월에 부록(통권 제 10호)를 12월에 발간하였다.

통권 9호에는 7편의 논문과 2편의 자료를 통권 10호에는 李愚喆박사의 학위 논문을 게재하였다.